

保健關係機關 및 團體와 社會教育機關의 保健教育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李時伯* · 申碩吁** · 鄭惠瓊*
趙恒爽* · 韓喜晶*

(서울大學校保健大學院*, 保健社會部**)

目 次

- | | |
|-----------------|---------|
| 1. 研究背景 | 4. 研究結果 |
| 2. 研究目的 | 5. 結 論 |
| 3. 研究對象者 및 資料蒐集 | |

1. 研究背景

지난 25여년간 우리 사회가 이룩한 經濟·社會分野의 발전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醫療서비스의 接近性 및 利用可能性의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死亡力과 出產力은 급격히 하강하여 人口構造를 변모시키고 있다. 그리고 死亡과 罹患의 유형 역시 크게 달라져서 과거의 傳染病 및 急性疾患 위주의 保健問題에서 非傳染性 또는 慢性病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先進國家의 유형대로 精神病이나 慢性退行性疾病이 주요한 保健問題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保健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개인보다는 集團中心, (2)診療事業보다는 豫防事業中心으로 획기적인 사업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지역사회 공동책임하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保健問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인 接近手段으로서 국민들의 保健意識水準을 향상시킬 수 있는 保健教育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保健教育事業을 對象者 중심으로 분류하면, 일반 學校人口를 對象으로 한 學校保健教育, 地域社會住民을 對象으로 한 地域社會保健教育 및 產業場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產業保健教育으로 나눌 수 있는데, 健康에 대하여 기본적인 認識을 높이고 건전한 態度를 가지게하기 위하여 우선 學校保健教育을 강화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社會文化의 변화가 빠른 형편에서는 學校教育課程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教育內容이나 重要한 知

識을 地域住民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學校教育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地域社會 保健增進에 直接的인 참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成人 對象의 社會保健教育도 또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특히, 保健教育事業은 他保健事業과 반드시 통합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保健事業을 지원해야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教育訓練機能을 가진 保健關係機關 및 團體와 여타 關係 社會教育機關은 保健事業에 종사하는 모든 保健要員과 保健事業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社會保健教育을 함에 있어 가능한 적극적으로 活用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의 教育訓練機能을 가진 保健關係機關 및 團體와 社會教育機關의 現行 教科課程 중 保健關係教育 실시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向後 이들 機關을 통해 保健教育事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고, 保健關係教育課程의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여 社會教育機關을 통한 保健教育의 活性化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調查를 실시하였다.

2. 研究目的

本研究에서는 現在 우리나라의 保健關係機關 및 團體와 社會教育機關의 訓練教育課程 속의 保健教育實態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具體的 目的을 둔다.

첫째, 保健關係機關 및 團體에서 實施하고 있는 教育課程의 分布, 教育對象者에 따른 教育課程 分布 現況을 파악한다.

둘째, 社會教育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教育課程의 分布와 教育期間, 教育內容 및 教育對象者에 따른 教育課程 分布現況을 파악한다.

셋째, 社會教育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訓練教育課程에서 教育對象者, 教育課程 및 保健關係教育의 現況을 파악한다.

3. 研究對象者 및 資料蒐集

本 調查研究의 對象은 크게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전국 綜合病院 및 保健團體이고, 두번째는 社會教育機關이다. 이들 綜合病院과 保健團體는 訓練教育機能을 가진 組織으로서 定期 또는 非定期的인 教育課程을 수행하고 있다.

調查의 對象된 綜合病院과 團體수는 모두 138개소로 그중 病院이 62개소, 保健團體가 76개소였으며, 社會教育機關은 105개 機關이었다. (表1 참고).

表1 調查對象組織 및 團體

組織 및 團體	N	%
病 院 : 대학병원	23	37.10
종합병원	31	50.00
일반병원	3	4.84
특수병원	3	4.84
지방공사	2	3.23
계	62	100.00
保 健 團 體 : 보건의료단체	14	18.42
의료인단체	8	10.53
의료보조인력단체	8	10.53
식품관계단체	19	25.00
의약품관계단체	20	26.32
이·미용·숙박업	3	3.95
기 타	4	5.26
계	76	100.00
사회교육기관 : 중앙부처	2	1.90
공무원훈련기관	21	20.00
교원훈련기관	24	22.86
부처별특별훈련기관	54	51.43
새마을연수원	2	1.90
청 년 원	2	1.90
계	105	100.00

本 調查研究의 資料蒐集方法은 保健社會部에서 전국의 綜合病院 및 산하 保健團體와 社會教育機關

을 대상으로 研究目的을 위해 설계된 조사설문지를 발송한 후 各機關에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음 기록된 조사설문지는 다시 保社部로 회신토록 하였으며, 회신된 資料 가운데 分析資料로서 사용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分析資料로 사용하였다. 本 資料蒐集 기간은 1986年 11월부터 12월까지였다.

資料蒐集內容은 病院 및 保健團體의 경우에 있어서는 各機關에서 개설하고 있는 訓練教育課程을 중심으로 教育對象, 教育實施機關, 教育實施方法, 教育費用負擔者, 教育期間을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社會教育機關의 경우는 전체 教育課程에 대해 教育對象, 教育內容, 課程 당 人員, 保健關係教育時間有無, 保健關係教育實施內容의 現況을 파악하였다.

4. 研究結果

가) 病院과 保健關係團體의 教育課程分析

(1) 教育對象者에 따른 教育課程

各 病院과 保健關係團體가 年間 開設하고 있는 教育課程을 對象者에 따라 의료인, 의료보조인, 직원, 關連분야인, 주민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教育課程의 分布는 表2와 같다.

表2 教育對象者에 따른 教育課程 分布

	의료인	의 료 보조인	직 원		관 련 분야인	주 민	계	
			일반인	전직원				
病院	125 (38.46)	98 (30.15)	62 (19.08)	35 (10.77)	97 (29.85)	4 (1.23)	1 (0.31)	325 (100.00)
團體	18 (10.00)	11 (6.11)	81 (24.92)	14 (23.33)	95 (48.25)	14 (7.78)	14 (7.78)	180 (100.00)
計	143 (28.32)	109 (21.58)	143 (28.32)	77 (15.25)	220 (43.56)	18 (3.56)	18 (2.97)	505 (100.00)

病院에서 醫療人을 對象으로 하고있는 課程이 38.4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醫療補助人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도 각각 30.15퍼센트, 29.85퍼센트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保健關係團體의 경우에 있어서는 年間 實施하고 있는 180課程가운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교육과정이 48.25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醫療人과 醫療補助人을 對象으로 하고있는 教育課程은 10.

00퍼센트, 6.11퍼센트로 병원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病院이 保健關係團體에 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보조인에 대한 教育課程이 많은 이유는 教育內容에 의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마도 病院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으로 구성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사법 제 2조에 규정된 의료보조인은 그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의 주민이나 환자를 위한 教育은 0.31퍼센트로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에게 올바른 보건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의료인의 책임인 동시에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병원이나 보건관계단체가 이에 대한 教育을 등한시하고 있음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겠다. 이상 각급 병원과 保健에 관계된 團體들의 教育課程分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들 조직의 教育活動이 자체 직원 특히 전문인 훈련교육에 치중되어 있을뿐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교육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2) 病院 및 保健關係團體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

表 3은 62個의 病院과 76個의 保健關係團體 총 138個의 조직을 對象으로 年間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數의 分佈를 나타낸 것이다. 病院에 있어서는 4~6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37.10퍼센트로 가장 많고 1~3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病院이 30.10퍼센트로 그 다음이며 10개과정이상을 개설하고 있는 病院도 있긴하나 9.68%로 많지 않다. 保健關係團體의 경우에는 1~3과정의 教育課程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57.89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表 3 組織團體別 教育課程分佈

교육과정 없음	1-3	4-6	7-9	10+	계	
病院	0 (0.00)	19 (30.65)	23 (37.10)	14 (22.58)	6 (9.68)	62 (100.00)
團體	14 (18.42)	44 (57.89)	9 (11.84)	3 (3.95)	6 (7.89)	76 (100.00)
계	14	63	32	17	12	138

4~6과정의 教育課程개설이 11.84퍼센트, 7~9과정이 3.95퍼센트, 10개과정이상을 개설하고 있는 保健關係團體가 7.89퍼센트로 나타났다. 또한 18.42퍼센트에 해당하는 14개 保健關係團體는 1개의 教育課程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병원이 평균 5.90과정 保健關係團體가 3.32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病院이 保健關係團體보다 2.58과정을 더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차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수교육을 강제규정으로 받아야하는 病院人力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教育期間에 따른 教育課程分佈

病院과 保健關係團體에서 年間 322個와 180個의 教育課程을 각각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教育課程別로 나누어 보면 表 4와 같다. 病院의 경우 한 教育課程당 2~3일의 教育期間을 갖는 教育이 61.80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이 하루동안의 教育期間으로 20.81퍼센트였다. 保健關係團體에 있어서는 하루동안의 教育期間을 가지고 있는 課程數가 35.56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3일로서 32.78퍼센트, 4~6일이 10.56퍼센트, 그리고 일주일 이상은 21.11퍼센트로 각각 나타났다.

表 4 教育期間에 따른 教育課程 分佈

	1일이하	2-3일	4-6일	일주일이상	계
病院	67 (20.81)	199 (61.80)	34 (10.56)	22 (6.83)	322 (100.00)
團體	64 (35.56)	59 (32.78)	19 (10.56)	38 (21.11)	180 (100.00)
計	131 (26.10)	258 (51.39)	53 (10.56)	60 (11.95)	502 (100.00)

* 무응답 137명의

(4) 教育課程의 教育方法 分佈

病院과 保健關係團體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의 教育課程分佈를 보면 表 5와 같다. 일반적으로 教育方法은 크게 나누어 對人中心教育과 媒體中心教育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分析하고자 하는 對人을 中心으로하는 教育은 다시 개별지도 방법과 집단교육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個別指導方法은 노력, 시간, 예산등 效率面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個人的 態도와 行爲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 높은 方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對象者에게 일정기간동안을 通하여 예정된 情報을 일방적으로 전달시키고자 할 경우는 個別指導方法의 利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集團教育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

表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病院에서 開設하고 있는 課程의 91.69퍼센트, 保健關係團體는 84.44퍼센트가 강의나 강연을 통한 集團教育의 形態로 教育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전달의 效率性이 높고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세미나/간담회를 利用한 教育方法은 病院이 0.62퍼센트, 保健關係團體가 3.33퍼센트로 양쪽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表 5 教育方法에 따른 教育課程分布

	집합/강 세미나/ 시청각/ 의/강연	간담회	통신교육	순 회	계
病院	298 (91.69)	2 (0.62)	8 (2.46)	17 (5.23)	325 (100.00)
團體	152 (84.44)	6 (3.33)	14 (7.77)	8 (4.44)	180 (100.00)
計	450 (89.11)	8 (1.58)	22 (4.36)	25 (4.95)	505 (100.00)

*무응답 134례의

(5) 教育課程의 教育費負擔 財源

國民健康水準의 增進에 필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對象인 國民의 건강관리, 예방 치료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위한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의료 자원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再教育을 行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이 再教育을 위한 教育費 負擔은 表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病院의 경우에 있어서는, 46.24퍼센트가 각 病院 자체의 負擔으로 하고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被教育者가 負擔하는 경우도 전체 372課程 가운데 26.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保健關係團體의 경우에 있어서는 44.84퍼센트가 各 團體의 자체부담으로 되어있고 공동부담도 42.06퍼센트로 자체부담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保健關係團體에서의 自費에 의

한 教育課程의 참여는 病院보다 낮은 10.32퍼센트로 나타났다.

表 6 教育費財源에 따른 教育課程分布

	자체부담 본	인 실시기관	공동부담	계	
病院	172 (46.24)	97 (26.08)	5 (1.34)	98 (26.34)	372 (100.00)
團體	113 (44.84)	26 (10.32)	7 (2.78)	106 (42.06)	252 (100.00)
計	285 (45.67)	123 (19.71)	12 (1.92)	204 (32.69)	624 (100.00)

*무응답 15례의

나) 社會教育機關의 教育實態

(1) 一般教育課程의 教育內容 分析

(가) 機關別 教育課程分布

조사대상 105個 機關가운데 年間 教育課程은 表 7 에서와 같이 가장 많은 것은 7회以上으로 전체의 40.95퍼센트를 차지하며 1회 課程을 개설하고 있는 機關이 24.76퍼센트로 그다음이다. 이는 역시 대부분의 教育課程이 長短期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21個의 公務員訓練機關과 57個 部處의 特別訓練機關에서 各各 7회이상의 教育課程을 開設하고 있는 것이 61.90퍼센트, 그리고 46.30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1회의 教育課程을 개설하고 있는 機關도 教育訓練機關에서 42.67퍼센트 그리고 部處의 特別訓練機關에서 20.37퍼센트로 비교적 높다.

(나) 教育期間에 따른 教育課程

機關別로 실시된 教育은 총590個 課程으로 이들 各 課程당 期間의 分布는 表 8 과 같다.

총教育課程당 1~3주의 期間동안 教育이 실시된 경우가 47.80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2~6일 教育期間으로 18.47퍼센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1주이상 4주미만에 속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各 機關別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과정의 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公務員訓練機關, 敎員訓練機關 그리고 部處의 特別訓練機關에서 전체의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訓練機關에서 대부분 1~3주 教育期間의 課程을 개설하고 있다. 즉 同期間의 教育課程이 公務員訓練機關에서는 42.

表7 機關別 教育課程數

	1	2	3	4	5	6	7+	計
中央部處機關	2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公務員訓練機關	3 (14.29)	0 (0.00)	0 (0.00)	3 (14.29)	0 (0.00)	2 (9.52)	13 (61.90)	21 (100.00)
教育訓練機關	10 (42.67)	2 (8.33)	4 (16.67)	1 (4.17)	1 (4.17)	1 (4.17)	5 (20.83)	24 (100.00)
部處의特別訓練機關	11 (20.37)	5 (9.26)	3 (5.56)	2 (3.70)	5 (9.26)	3 (5.56)	25 (46.30)	54 (100.00)
새마을研修機關	0 (0.00)	1 (50.00)	0 (0.00)	0 (0.00)	1 (50.00)	0 (0.00)	0 (0.00)	2 (100.00)
青年訓練機關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計	26 (24.76)	8 (7.62)	8 (7.62)	7 (6.67)	7 (6.67)	6 (5.71)	43 (40.95)	105 (100.00)

表8 各社會教育機關의 教育期間에 따른 教育課程數

	1일이하	2-6일	1-3주	4주미만	1-2개월	기타(수시로)	計
中央部處機關 (N=2)	2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公務員訓練機關 (N=21)	6 (2.13)	56 (19.86)	121 (42.91)	62 (21.99)	36 (12.77)	1 (0.35)	282 (100.00)
教員訓練機關 (N=24)	0 (0.00)	5 (10.64)	26 (55.32)	3 (6.38)	13 (27.66)	0 (0.00)	47 (100.00)
部處의特別訓練機關 (N=54)	3 (1.22)	40 (16.33)	131 (53.47)	34 (13.88)	37 (15.10)	0 (0.00)	245 (100.00)
새마을研修機關 (N=2)	0 (0.00)	5 (71.43)	0 (0.00)	0 (0.00)	2 (28.57)	0 (0.00)	7 (100.00)
青年訓練機關 (N=2)	0 (0.00)	3 (42.86)	4 (57.41)	0 (0.00)	0 (0.00)	0 (0.00)	7 (100.00)
計	11 (1.86)	109 (18.47)	282 (47.80)	99 (16.78)	88 (14.92)	1 (0.17)	590 (100.00)

90퍼센트, 教育訓練機關에서는 55.30퍼센트, 그리고 部處의 特別訓練機關에서는 53.50퍼센트를 各各 보 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수의 機關 에서 한 課程당 1~3주동안의 期間의 教育을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教育內容에 따른 教育課程

各 機關에서 실시한 教育內容을 新入者課程, 職務 教育(中·高級課程), 교양·소양·정신교육, 전문

기술교육, 保健關係教育, 경제교육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이들 教育內容別 教育課程의 分布를 보면

表 9 와 같다.

表9 教育內容에 따른 教育課程 分布

	기 타	신 입 자 과 정	직무교육 (중,고급 과정)	교 양/ 소 양/ 정신교육	전 문 기술교육	보건관계 교 육	경제교육	계
中央部處機關	0 (0.00)	0 (0.00)	0 (0.00)	2 (10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公務員訓練機關	1 (0.35)	18 (6.38)	153 (54.26)	56 (19.86)	16 (5.67)	25 (8.87)	13 (4.61)	282 (100.00)
敎員訓練機關	0 (0.00)	0 (0.00)	11 (23.40)	23 (48.94)	1 (2.13)	7 (14.89)	5 (10.64)	47 (100.00)
部處의特別訓練機關	0 (0.00)	10 (4.08)	110 (44.90)	37 (15.10)	67 (27.35)	7 (2.86)	14 (5.71)	245 (100.00)
새마을研修機關	0 (0.00)	0 (0.00)	0 (0.00)	7 (100.00)	0 (0.00)	0 (0.00)	0 (0.00)	7 (100.00)
青年訓練機關	0 (0.00)	0 (0.00)	0 (0.00)	6 (85.71)	0 (0.00)	0 (0.00)	1 (14.29)	7 (100.00)
計	1 (0.17)	28 (4.75)	274 (46.44)	131 (22.20)	84 (14.24)	39 (6.61)	33 (5.59)	590 (100.00)

총 590의 教育課程中 직무교육에 관한 교육이 46.44퍼센트로 가장 높고 교양·소양·정신교육이 22.20퍼센트, 전문기술교육이 14.24퍼센트, 그리고 보건관계교육이 6.61퍼센트 순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教育內容의 分布를 機關別로 살펴보면 公務員訓練機關에서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54.25퍼센트로 가장 높고, 교양·소양·정신교육이 19.86퍼센트 그리고 保健關係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8.87퍼센트이다. 國立·部處別訓練機關에서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44.90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기술교육으로 27.35퍼센트이다. 한편 保健關係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2.86퍼센트로 저조하다. 이상 살펴본 바로 대부분의 機關에서 많은 教育課程의 內容이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保健關係教育內容은 6.61퍼센트 정도만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教育對象者의 教育課程

教育은 크게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으로 兩分할 수 있다. 學校教育의 對象은 定規教育課程에 속해있는 모든 學校人口를 통틀어 말하는 學生이다. 반면에 社會教育은 定規教育機關인 學校의 定規教育課程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다. 따라

서 社會教育의 對象者는 職業別로 多樣性을 띠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對象者는 社會教育 對象者로서, 일반인, 공무원, 기업체사원, 교사 및 학생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表10을 보면 전체 590個의 課程가운데 公務員과 企業體職員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 45.10퍼센트와 39.50퍼센트로 全課程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教育機關이 비록 社會教育機關이라는 공통된 특수성이 있긴하나 대부분 정부기관 訓練教育機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피교육자의 상당한 수가 비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각 教育機關別로 各對象者에 따른 課程分布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훈련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 282개중 5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정이 기업체 사원을 對象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또 公務員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教育課程도 45.40퍼센트를 차지하여 公務員訓練機關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中 97퍼센트가 公務員과 企業體의 社員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敎員訓練機關은 그 自體의 특수성 때문에 敎職者 및 學生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教育課程이 74.50퍼센트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他機關과 다르다. 本 調査의 응답기관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國立/部處別 特別訓練機關은 公務員을 對象으로하는 教育課程이 57.20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企業체의 職員을 對象으로 하는 教育課程 역시 31.80퍼센트로 公務員訓練機關과 비슷한 유형을 나타냈다.

表10 教育對象者의 教育課程分佈

	공무원			소계	기업체		소계	교사및학생	계
	일반인	일반하급 공무원	고급간부 공무원		신입사원및 산업근로자 (생산직)	기업체 중견/ 임직원			
中央部處 (N=2)	0 (0.00)	2 (100.00)	0 (0.00)	2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公務員訓練機關 (N=21)	6 (2.1)	90 (31.9)	38 (13.5)	128 (45.4)	44 (15.6)	100 (35.5)	144 (51.6)	4 (1.4)	282 (100.00)
教員訓練機關 (N=24)	0 (0.00)	1 (2.1)	0 (0.00)	1 (2.1)	1 (2.1)	10 (21.3)	11 (23.4)	35 (74.5)	47 (100.00)
部處別特別訓練機關 (N=54)	17 (6.9)	95 (38.8)	45 (18.4)	140 (57.2)	17 (6.9)	61 (24.9)	78 (31.8)	10 (4.1)	245 (100.00)
세마울研修機關 (N=2)	4 (57.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42.9)	7 (100.00)
青年訓練機關 (N=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100.00)	7 (100.00)
計	27 (4.6)	188 (31.9)	83 (14.1)	271 (45.1)	62 (10.5)	171 (29.0)	133 (39.5)	59 (10.0)	590 (100.00)

(마) 教育課程內 保健關係時間의 포함有無

社會教育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教育課程中 本 調査에서 나타난 健康 및 保健教育에 관한 시간의 포함 여부를 對象者別로 나타낸 결과는 表11과 같다. 教育課程의 保健關係內容은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학교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환경보건, 정신보건, 의료보험/사회보장, 건강관리, 산업보건, 보건법규, 보건행정, 구강보건, 약물음주흡연, 식품위생, 영양관리, 소득 및 살균, 모자보건, 성교육, 보

공무원:

일반하급공무원
(6급이하) 47 (25.00) 141 (75.00) 188 (100.00)

고급간부행정공무원 22 (26.51) 61 (73.49) 83 (100.00)

소 계 69 (25.46) 202 (74.54) 271 (100.00)

기업체직원:

기업체신입사원및
산업근로자(생산직) 12 (19.35) 50 (80.65) 62 (100.00)

기업체중견/임직원 78 (45.61) 93 (54.39) 171 (100.00)

소 계 90 (38.63) 143 (61.37) 233 (100.00)

교사·학생 21 (35.59) 38 (64.41) 59 (100.00)

계 193 (32.71) 397 (67.29) 590 (100.00)

表11 對象者別 教育課程內 保健關係 教育時間 포함 유무

	무	유	계
일반인	13 (48.15)	14 (51.85)	27 (100.00)

건통계 역학 및 전염병관리등인데 이를 對象者別로 알기위해 表11과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教育課程中 67.29퍼센트가 保健關係教育時間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對象者別로 具體的으로 보면 6급 이하의 일반하급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教育課程中 75.00퍼센트가 保健關係教育時間을 포함하고 있고 고급간부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教育課程에는 73.49퍼센트가 保健關係教育時間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체 중견/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교육과정중 54.39퍼센트가 保健關係教育時間을 포함하고 신입사원과 산업근로자의 경우 80.65퍼센트의 保健關係教育時間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을 對象으로 하는 教育課程에서도 64.41퍼센트가 保健關係 教育時間을 포함하고 있

었다. 이와같이 社會教育機關의 保健關係教育은 비록 다른 教育內容에 비해 상대적 비중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對象者에게 保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保健關係 教育內容分析

社會教育機關에서 개설하고 있는 509個의 教育課程中 保健關係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과목시간수는 총789시간이었다. 이를 25個의 주제로 나누어 본 결과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인구 및 가족계획이 각 14.0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의료보험·사회보장이 12.47퍼센트, 환경보건 8.75퍼센트, 보건교육이 8.37퍼센트 순이었으며, 나머지 주제는 낮은 퍼센트를 나타내었다. (表12 참조).

表12 教育對象者別 保健關係 教育實施內容 分布

	일반인	일반하급직 공무원	고급간부행정 공무원	기업체신입사원 및 산업근로자 (생산직)	기업체중견 임직원	교사·학생	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1(4.0)	39(12.38)	22(20.37)	21(22.83)	16(12.30)	12(10.34)	111(14.07)
보건 교육	1(4.0)	11(3.49)	11(10.19)	4(4.35)	25(18.80)	14(12.06)	66(8.37)
학교 보건	0	2(0.63)	0	0	0	7(6.03)	9(1.14)
인구 및 가족 계획	2(8.0)	43(13.65)	6(5.56)	24(26.09)	31(23.20)	5(4.30)	111(14.07)
환경 보건	2(8.0)	40(12.70)	16(14.80)	1(1.09)	3(2.26)	7(6.03)	69(8.75)
정신 보건	4(16.0)	4(1.27)	9(8.33)	8(8.70)	19(14.29)	20(17.24)	64(8.11)
의료보험 / 사회보장	2(8.0)	64(20.32)	15(13.89)	12(13.04)	3(2.26)	2(1.72)	98(12.42)
건강 관리	3(12.0)	23(7.30)	14(12.96)	3(3.26)	8(6.02)	9(7.76)	60(7.60)
산업 보건	1(4.0)	1(0.32)	2(1.85)	12(13.04)	8(6.02)	0	24(3.04)
보건 법규	0	8(2.54)	0	0	1(0.74)	0	9(1.14)
보건 행정	0	17(5.40)	6(5.56)	0	0	0	23(2.92)
응급 처치	0	5(1.59)	0	0	0	5(4.31)	10(1.27)
구강 보건	0	1(0.32)	0	0	0	3(2.59)	4(0.51)
약물, 흡연, 음주	0	1(0.32)	0	0	1(0.74)	1(0.86)	3(0.38)
식품 위생	2(8.0)	13(4.12)	1(0.93)	0	3(2.26)	5(4.30)	24(3.04)
영양 관리 / 영양 개선	4(16.0)	7(2.22)	1(0.93)	0	7(5.26)	7(6.03)	26(3.30)
소독 및 살균	1(4.0)	1(0.32)	0	0	1(0.74)	1(0.86)	4(0.51)
여성의학/모자보건/성교육	1(4.0)	5(1.59)	4(3.70)	2(2.16)	6(4.50)	2(1.72)	20(2.53)
약품 관리	0	1(0.32)	0	0	0	4(3.45)	5(0.63)
안전 관리	0	2(0.63)	0	3(3.26)	0	2(1.72)	7(0.89)
보건 통계	0	8(2.54)	0	0	0	2(1.72)	10(1.27)
역학 및 전염병 관리	0	11(3.49)	0	1(1.09)	0	2(1.72)	14(1.77)
한방 의학	0	1(0.32)	0	0	0	0	1(0.13)
공중 보건 전반	1(4.0)	6(1.90)	1(0.93)	0	1(0.74)	6(5.17)	15(1.90)
기타	0	1(0.32)	0	1(1.09)	0	0	2(0.25)
계	25(100.0)	315(100.0)	108(100.00)	92(100.00)	133(100.00)	116(100.00)	789(100.00)

이와 같은 결과는 1988년 올림픽개최 유치이후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 정부의 강력한 인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강화,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 환경보건과 보건일반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들이 국가시책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를 다시 교육대상자별로 보면 일반인의 교육에서는 정신보건과 영양관리·영양개선이 각각 16퍼센트로 가장 높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은 12퍼센트였다. 일반하급직공무원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사회보장이 20.32퍼센트, 인구 및 가족계획이 13.65퍼센트,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이 12.38퍼센트의 순이었다. 고급간부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이 20.37퍼센트, 환경보건이 14.80퍼센트, 의료보험·사회보장 13.89퍼센트, 건강관리 12.96퍼센트 순이었다. 그리고 기업체 신입사원 및 생산직근로자의 경우는 인구 및 가족계획이 26.09퍼센트,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이 22.83퍼센트, 의료보험·사회보장 및 산업보건의 각 13.04퍼센트였다. 기업체 중견사원의 경우는 인구 및 가족계획 23.20퍼센트, 보건교육 18.80퍼센트, 정신보건 14.29퍼센트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교사·학생의 경우는 정신보건 17.24퍼센트, 보건교육 12.06퍼센트,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10.34퍼센트, 건강관리 7.76퍼센트 등의 순이었다.

대상자별로 보건과 관련된 교육내용의 분포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특성별로 교육내용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인은 정신보건, 영양, 건강관리와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主要内容이었고,公務員은 의료보험, 인구 및 가족계획과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특히 산업보건에 관한 것이 다른 대상자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상자의 교육요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사·학생에 대한 교육내용은 정신보건이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다른 보건문제보다도 정신보건에 관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비교적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교과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5. 結 論

우리나라의 보건關係機關 및 團體와 社會教育機關의 訓練教育課程속에 保健教育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6年 11월부터 12월까지 本 調査를 實施하였다. 調査의 對象은 病院 62개, 保健團體가 76개였으며, 社會教育機關은 105개였다. 조사방법은 연구목적에 의해 설계된 조사설문지를 발송한 후, 各 機關에서 기입해서 保社部로 회신토록 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이 자료에 포함된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分析하였으며,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 病院과 保健關係團體의 教育課程分析

病院에서는 年間 325個의 課程을 개설하고 있는데 醫療人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課程이 38.4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醫療補助人과 職員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課程도 각각 30.15퍼센트, 29.85퍼센트로 나타났다. 保健關係團體는 年間 180課程중에 職員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教育과정은 48.25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課程은 病院 0.31퍼센트, 단체가 7.78퍼센트로 民間醫療機關의 保健教育活動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各 病院이나 團體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課程은 평균 5.90과정 3.32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病院에서는 「4~6과정」이 37.10퍼센트로 가장 많고, 保健關係團體는 1~3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團體가 57.89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과정별 教育機關은 病院이 2~3일의 教育기간을 갖는 것이 61.80퍼센트, 保健關係團體는 하루동안의 教育기간을 가지고 있는 教育課程이 35.56퍼센트를 차지했다. 教育方法別로 보면 病院은 課程의 91.69퍼센트, 보건관계단체는 84.44퍼센트가 강의나 강연을 통한 집합교육의 形態로 실시되고 있었다. 教育費의 負擔은 病院이나 보건관계단체 모두 46.24퍼센트, 44.84퍼센트로 自體負擔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社會教育機關의 教育實態

調査對象인 105個 社會教育機關 가운데 年間 7회 以上の 課程을 갖는 기관이 전체의 40.9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課程당 期間은 1 주이상 4 주미만의 교육기간이 전체의 64.58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었다. 教育內容은 직무교육에 관한 것이 전체 課程의 46.44퍼센트를 나타냈고 保健關係教育도 6.61퍼센트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과정별 教育對象者의 分布를 보면, 전체 課程中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전 課程의 84.60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教育課程中 健康과 保健에 관한 內容을 포함시키고 있는 課程은 67.29퍼센트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社會教育機關에서 하고있는 保健關係教育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거의 모든 對象者에게 保健에 관한 內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金水日, “社會教育의 活性化 方案”, 韓國保健教育學會誌, 第4卷1號, 1987. pp. 25-34.
- 김미경, 各級 社會教育機關을 통한 人口 및 家族計劃 教育 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法令集, 1986.
- 유삼태, “社會教育을 통한 保健教育”, 國民保健教育戰略開發세미나 報告書, 1985.
- 李時伯, 學校 保健教育 向上을 爲한 學校保健事業實態 分析과 對策研究, 保健學論集 第37號, 1984.
- 12